

# 기록은 남길수록 좋은가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교 교수

“내가 회고록을 쓰지 않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입니다. 시중에 있는 많은 회고록들이 자신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못마땅합니다.” 이것은 어느 원로 정치인 한 분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정계와 관계를 두루 涉歷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따라서 작가는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나라가 겪어온 여러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분이라서 글로써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낫겠다고 한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이었다.

그러나 정치인 내지는 각 분야의 公人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정확하고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후세를 위한 길이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역사연구라는 것은 대개 그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기록은 정확할수록 값지다. 만일 자신의 편견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다면 그만큼 후대의 사람들은 진실과 거리가 먼 자료를 가지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기록이 가능하면 많이 남겨져야 한다는 또다른 당위는 공공부문의 기록이 좀처럼 없고 또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주위의 동료교수 한 분이 장관들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국무회의의 자료를 얻으려고 해도 공개하지 않아 애를 먹는다. 또 과거의 것은 회의의 내용을 기록조차 하지 않고 날짜와 더불어 안전과 참석자 이름만 남겨놓은 정도여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회의의 대부분이 이런 사정이고, 국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일본과 달리 근본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차나 규정을 어겨가며 정당하지 못하게 내리는 결정일수록 책임이 두려워 회의내용을 자세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민주화의 열풍이 풍향계를 설 틈없이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에 한자리하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회고록을 내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고백이 있고 육성증언 같은 것도 있으며 양심선언 비슷한 것도 없지 않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권좌에 있을 때는 인권을 유린하며 천하를 호령하다가 거세된 후의 한을 위로받고 보상받기 위해 회개는커녕 소영웅의 심리를 다시 발동한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야당정치인들이 특히 선거철이 되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잔뜩 부풀려서 활자화시킨다. 개중에는 자신이 직접 쓰기보다 용역작가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적은 수이기도 하지만 미진한 학력을 보전하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연구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이 직접 면담 때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글에서 얻은 정보가 무용해지기 때문이다. 글에서 느낀 감동이 날아가버리고 마는 때도 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만 요즘은 덩달아 기업인들도 소셜가나 카피라이터의 기발한 표현에 힘입어 시선을 끄는 제목을 붙여 회고록을 내고 있다.

기록은 남길수록 좋다. 그리고 책은 많을수록 좋다. 베일에 가려지는 정치의 속성 때문에 정치인의 회고록이나 출판물은 더욱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자기미화이고 자기변명일 때 좋기가 아깝고 책은 가련해진다. 권력의 세계에서나 혹 통할 수 있는 버릇으로 지적세계까지 유린하면 정말로 역사의 죄인이 된다.

|          |    |  |
|----------|----|--|
| 뉴스       | 2  | 방송매체 출판광고 증가추세 · 외   |
| 표지인물     | 4  | “홀로 술잔을 드는 새벽은 눈물겹다”<br>우리시대 최고의 인기작가 이문열씨   |
| 집중취재     | 6  | 한국문학 세계화, 제 궤도 진입한다<br>단순 소개서 본격 수출로 옮겨가며 상품경쟁력 갖춰   |
| 서평       | 8  | 최종고 「법과 윤리」 — 임 웅<br>현외성 외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 나병균<br>9 이광주 「지식인과 권력」 — 정현백<br>배영수 외 「서양사상의」 — 이석우<br>10 윤평중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과…」 — 이진우<br>장정일 「너에게 나를 보낸다」 — 김성렬<br>11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 정용석 |
| 화제의 책    | 12 | 우리 옛장터를 비추는 세 갈래 조명<br>「한국시장경제사」 「시장의 사회사」 「한국의 장시」  |
|          | 13 | 책으로 되살린 전통명목의 현상<br>정범태 사진·구희서 글 「춤과 그 사람」   |
| 초점       | 14 | 재고도서 유통, 해결의 묘책은 없는가<br>출판서적상계의 애물단지... 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   |
| 출판취재     | 16 | 책에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는 책들<br>풍성한 책의 세계로 독자들 안내... 고전·명저목록 주류 이뤄  |
|          | 17 | 출판학 정초 다지는 책 점차 는다<br>과학적 이론서 잇달아 선보여... 현장비평적 출판론도 활기   |
|          | 18 | 출판사 독자카드제, 어떻게 운영되나<br>소요비용 만만찮지만 장기적으론 기여도 커  |
| 리포트      | 19 | “정보화사회의 유통정보시스템 시급하다”<br>출판영업인협의회 세미나 지상중계   |
| 이 책 그 사람 | 20 | 「이 슬픔 끝없이 끝없이」 낸 이기형씨<br>「회남자」 번역한 이석호 교수<br>21 「원앙보」 번역한 남여명씨<br>「몬드라곤에서 배우자」 번역한 김성오씨  |
| 해외출판     | 22 | 옛 서독서점들이 얻은 통독의 선물 · 외 — 이봉호   |
| 컬러화보     | 24 | 책의 축제, 혹은 사람의 잔치<br>제44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  |
| 세계의 책    | 26 | 여성폭력에 덧씌워진 편견의 이미지 · 외 — 배병삼   |
|          | 28 | 독자서평   |
|          | 30 | 화제의 신간   |
|          | 32 | 신간안내   |
|          | 40 | 200자 안내  |
|          | 42 | 신간목록   |
|          | 48 |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  |
|          |    | 표지사진 / 김홍진   |